

류현진, '투수들의 무덤' 도 정복했다

콜로라도전 6이닝 무실점 호투 불구 승리 없어
평균자책점 1.66까지 낮추며 사이영상 가능성 ↑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1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투수들의 무덤'도 극복했다. 류현진(32·LA 다저스)이 평균자책점을 더 끌어내리며 사이영상 레이스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얻은 게 더 많은 쿠어스 필드 등판이었다. 류현진은 1일(한국시간) 미국 콜로

라도주 덴버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3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타선이 터지지 않으며 시즌 12승 도전은 불발됐다. 그러나 안정감 넘치

는 피칭으로 시즌 평균자책점을 1.74에서 1.66까지 낮췄다. 1점대 평균자책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부문 메이저리그 전체 1위도 지켰다.

쿠어스 필드의 '악몽'도 지워냈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 전까지 쿠어스 필드에서 통산 5차례 선발 등판해 1승4패 평균자책점 9.15로 고전했다. 지난 6월29일 콜로라도 원정에서 4이닝 동안 홈런 3개를 맞는 등 9피안타 7실점으로 난타를 당한 아픈 기억도 있다. 올 시즌 류현진의 최대 실점 경기이기도 했다.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오른 쿠어스 필드에서 제대로 설욕을 했다.

전담 포수 리셀 마틴이 아닌 신인 포수 윌 스미스와 처음으로 배터리를 이뤘지만, 류현진은 흔들림 없이 콜로라도 타자들을 잡아내었다.

천적 놀란 아레나도(콜로라도)도 공포 묶었다. 아레나도는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 0.609(23타수 14안타)를 때려내고 있었지만, 이날은 달랐다. 류현진은 아레나도를 3타수 무안타로 제압하며 틈을 보이지 않았다.

위기는 수비의 도움으로 가볍게 넘었다. 3회 1사 후 토니 윌터스에 오른 쪽 펜스를 때리는 2루타를 얻어 맞은 뒤 헤르만 마르케스를 3루 땅볼로 처리했다. 계속된 2사 2루에서 찰리 블랙먼에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허용했지만, 우익수 코디 벨란저가 날카로운 송구로 2루 주자 윌터스를

홈에서 잡아내 실점하지 않았다.

쿠어스 필드를 정복하며 사이영상 레이스도 더 힘을 받게 됐다.

류현진의 경쟁자로 꼽히는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는 부상자 명단(IL)에 올라있다.

류현진에게는 사이영상 레이스에서 앞서갈 기회가. 꾸준한 호투를 펼치고 있는 류현진은 '고비'로 여겨졌던 쿠어스 필드 원정에서도 견고한 투구로 사이영상 후보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스타인 스트라스버그(워싱턴)가 14승(4패)으로 다승 1위를 달리며 또다른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류현진은 시즌을 절반 이상 치른 시점에서 계속해서 평균자책점을 낮추기며 최고의 투수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다저스는 5-1로 이겼다. 0-0으로 맞선 9회초 스미스의 스리런포, 크리스토퍼 네그론의 2점 홈런이 터지며 승기를 잡았다.

류현진은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팀의 승리를 기분 좋게 바라봤다. 이날까지 류현진이 등판한 21경기에서 다저스는 16승5패로 높은 승률(0.762)을 자랑하고 있다. 그만큼 선발 투수 류현진이 긴 이닝을 최소실점으로 막아내는 선발 투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날도 류현진은 초반 흐름을 내주지 않으면서 버텼고, 다저스는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뉴시스

언터처블 류현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선두주자답다”

“메이저리그에서 평균자책 가장 좋은 1.66으로 낮춰”

LA 다저스 류현진(32), 평균자책점 선두주자에도 장애물은 없다.

‘투수들의 무덤’도 류현진을 막지 못했다. 1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3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투구 수는 80개.

불안한 등판이었다. 고지대에 위치한 쿠어스필드는 ‘투수들의 무덤’으로 악명이 높다. 공기 저항이 적어 장타가 많이 나오는 야구장으로 손꼽힌다.

류현진은 쿠어스 필드에서 고전해왔다.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5차례 등판, 1승4패 평균자책점 9.15로 죽을 췌다. 지난 6월29일 이곳에서 4이닝 9피안타(3홈런) 1볼넷 4탈삼진 7실점으로 난타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다시 선 쿠어스필드에서 영리한

피칭으로 콜로라도 타자들을 막아냈다. 콜로라도 지역매체 마일하이스포츠는 “류현진은 지난해 쿠어스필드 등판에서 4이닝 7실점했다”면서도 “류현진은 두 번째 등판에서 훨씬 좋아졌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선두주자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이 순간을 짚으며 “콜로라도 타선이 류현진을 상대로 득점에 가장 근접했던 순간”이라며 “류현진은 6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1개만 허용했다. 평균자책점 1.66으로 낮춰 정규 이닝을 채운 투수 중 선두를 지켰다”고 썼다.

MLB닷컴은 “류현진의 무실점은 벨

린저의 홈 송구 덕분에 지속됐다. 벨린저의 올해 9번째 보살”이라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6이닝 동안 80구를 던지며 무실점을 기록, 평균자책점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은 1.66으로 낮췄다”고 특기했다.

3개, 볼넷 1개를 허용하고 삼진 1개를 잡아냈다”고 덧붙였다.

위기는 수비의 도움으로 넘었다. 류현진은 3회 2사 2루에서 찰리 블랙먼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그 사이 2루에 있던 토니 윌터스는 3루를 지나 홈까지 내달렸다. 그러나 우익수 코디 벨란저의 정확한 송구로 윌터스는 홈에서 아웃됐다.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이 순간을 짚으며 “콜로라도 타선이 류현진을 상대로 득점에 가장 근접했던 순간”이라며 “류현진은 6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1개만 허용했다. 평균자책점 1.66으로 낮춰 정규 이닝을 채운 투수 중 선두를 지켰다”고 썼다.

MLB닷컴은 “류현진의 무실점은 벨

린저의 홈 송구 덕분에 지속됐다. 벨린저의 올해 9번째 보살”이라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6이닝 동안 80구를 던지며 무실점을 기록, 평균자책점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은 1.66으로 낮췄다”고 특기했다.

4회말에는 2사 1, 2루에 놓였지만 윤도 알론소를 1루 땅볼로 처리하고 실점 위기를 벗어났다. LA타임스는 “콜로라도는 4회 2루타와 볼넷으로 주자 2명이 출루했지만, 류현진은 위기를 탈출했다. 이후 7명이 타자를 연달아 범타로 잡아냈다. 큰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콜로라도 타선을 처리했다”고 평했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도 빼놓지 않았다. “리그 최고인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1.66으로 더 떨어졌다. 7월 한 달간 5번의 등판에서 32%이닝을 던지는 동안 4자책점만 내줘 평균자책점 1.10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손흥민 교체 45분 소화’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꺾고 아우디컵 우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이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아우디컵에서 우승했다.

토트넘은 1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벌어진 바이에른 뮌헨과의 2019 아우디컵 결승에서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6-5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전날 준결승에 이어 이번 연속 경기가 열리는 일정 때문에 선발에서 빠졌다.

선발 명단에서 빠진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돼 45분을 소화했다. 승부차기에서 네 번째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성공하며 우승에 기여했다.

토트넘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전반 19분 골문으로 쇄도하던 에릭 라멜라가 은쿠두의 땅볼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 바이에른 뮌헨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은 토트넘이 1-0으로 앞서며 끝났다. 토트넘은 후반 14분 에

릭센의 추가골로 2-0으로 달아났다.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저력이 대단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16분 안피에테 아르프, 후반 36분 알폰소 데이비스의 연속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결국 90분 동안 2-2로 비겼고,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열렸다.

손흥민은 네 번째 키커로 나서 골문 왼쪽을 노려 성공했다.

5-5로 팽팽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일곱 번째 키커 탕강가는 성공한 반면 바이에른 뮌헨의 보야팅은 실패하며 경기가 끝났다.

앞서 열린 3·4위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은쿠두의 땅볼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 바이에른 뮌헨의 골망을 흔들었다.

뉴시스

올해의 선수 10명 공개… ‘노쇼’ 호날두 포함

방향 경기 ‘노쇼’ 사태를 일으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선수상 후보가 됐다.

FIFA는 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 남자 선수 부문 최종 후보 10명을 공개했다.

세계 축구계를 양분하고 있는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이름을 올렸고, 지난 시즌 리버풀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으로 이끈 모하메드 살라, 버질 판 다이크, 사디오 마네도 후보로 등재됐다.

손흥민의 팀 동료 해리 케인(토트넘)과 에당 아자르(레알 마드리드),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 역시 포함됐다.

FIFA는 2015년까지 프랑스 풋볼과 함께 FIFA-발롱도르라는 이름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지만 프랑스 풋볼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라는 새로운 이름의 시상식을 탄생시켰다.

지난해에는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가 10년간 이어진 메시-호날두 시대를 무너뜨리고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뉴시스



■ **쉼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선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